

# 시사원정대 2021-7월호



## Contents

교재 들여다보기

1주 수업 계획표

1주 수업 내용

2주 수업 계획표

2주 수업 내용

3주 수업 계획표

3주 수업 내용

4주 수업 계획표

4주 수업 내용

참고자료

## 교재 들여다보기

### 1) 커버스토리

최신 시사뉴스에 대한 깊이 있는 배경설명과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해설기사.

매달 하나의 시사주제를 골라 쉽고 자세하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연관된 배경지식을 알려줍니다. 시사주제를 탐험하고 난 뒤에는 재미가 팡팡 터지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를 전개합니다.

### 2) 시사뉴스탐험

최근 가장 뜨거웠던 뉴스를 해설과 함께 소개하는 코너.

최근 이슈가 됐던 뉴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뉴스, 국제 이슈, 꼭 알아야 하는 시사 용어 등을 다룹니다. 토론이나 논술 수업의 자료로 적합한 기사가 많습니다.

### 3) 창의융합탐험

다양한 분야의 기사를 다룹니다. 과학, 한국어사, 경제, 시사이슈, 국제까지 다채로운 주제를 다룹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습니다.

### 4) 문화예술탐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기 위한 코너.

문화예술탐험에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까지 폭 넓은 문화, 예술 주제의 기사가 실립니다. 매달 추천도서가 제시되어 함께 책을 읽은 뒤 토론해볼 수 있습니다.

### 5) 리딩북

신문의 사실·칼럼을 10대 눈높이에 맞춰 정리합니다.

2개의 사실·칼럼을 쉽게 이해하며 읽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영어로 작성된 기사와 그 해석도 담겨 있습니다. 생생한 사진과 함께 국제 뉴스를 읽다 보면 상식을 키우는 것은 물론, 어휘·발음·독해·문법 능력도 향상됩니다.

### 6) 체험학습 비밀미션

체험학습 주제 고르기부터 장소 찾기, 체험 보고서 쓰기까지 한 번에 똑똑 해결하도록 도와줍니다.

## 4주 수업 계획표

단원	시사원정대 7월호 4주 (90분)		
학습 목표	미국-소련의 냉전과 미국-중국의 신냉전에 대해 학습한다.		
활동 초점	-냉전이 발생한다면 국제사회 및 국제경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생각해본다.		
구분	2주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5
펼치기	- 58~61 시간 여행자의 뉴스 - 새로운 냉전 Coming Soon? - 다시 냉전 시작? - 한 때는 친했지 않소?	- 냉전 - 자본주의, 공산주의 - 중국 견제법 - 닉슨	20
	- 96~99 빅데이터 속 키워드 - 한국인 최초! 새 역사 쓰다	- 한국 최초 에투알, 한국 최초 교황청 장관 - 마가와	20
	- 50~53 키워드톤 - 다시 달에서 걸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 달 탐사 - 아르테미스 약정 - 아폴로 프로젝트	40
마무리	-펼치기 주제와 관련된 창의활동을 한다. -다음달 수업 예고	-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배경을 알아보자.	5

[20분 수업 시, 활용 방법]

단원	시사원정대 7월호 4주		
학습 목표	미국-소련의 냉전과 미국-중국의 신냉전에 대해 학습한다.		
활동 초점	-냉전이 발생한다면 국제사회 및 국제경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생각해본다.		
구분	2주 중심 활동과 내용	교사 활동 초점	분
열기	- 지난 주 있었던 뉴스를 돌아본다. (베스트 뉴스를 선정해서 이야기 나누기) 스피드퀴즈로 어휘테스트	- 기회는 공평하게 준다. 문제를 간추려 고급 어휘만 추려서 테스트한다.	3
펼치기	- 58~61 시간 여행자의 뉴스 - 새로운 냉전 Coming Soon? - 다시 냉전 시작? - 한 때는 친했지 않소?	- 냉전 - 자본주의, 공산주의 - 중국 견제법 - 닉슨	15
	- 50~53 키워드톤 - 다시 달에서 걸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 달 탐사 - 아르테미스 약정 - 아폴로 프로젝트	15
마무리	다음 달 수업 예고, 신문 스크랩하기(스케치북활용) - 활동 안내	-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배경을 알아보자.	2

## 시간 여행자의 뉴스

### 새로운 냉전 Coming Soon?

#### <어휘 Up>

자본주의: 생산 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위하여 생산 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 경제 체제.

공산주의: 사유 재산제(私有財産制) 대신에 재산의 공유를 실현시킴으로써 계급 없는 평등 사회를 이룩하려는 사상 및 운동.

냉전: 직접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외교·정보 따위를 수단으로 하는 국제적 대립. 특히 제 2 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을 뜻하며, 1990년 소련의 해체와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양진영 사이의 냉전 상태는 사실상 종결되었다.

이념적: 이념에 기초를 두거나 이념에 관한 것.

내정: 국내의 정치.

불가침: 침범하여서는 안 됨.

#### <발문>

1. 본문을 읽고 미국vs소련의 냉전과 미국vs중국의 신냉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보자.
2. '닉슨이 중국에 가다'라는 관용구는 님이 확고했던 인물이 자신의 신념을 접고 과감한 결정을 내림으로써 적과 화해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관용구와 의미가 통했던 경험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자세히 묘사해보자.

#### <교사 참고자료>

##### [형설수설/송평인]일대일로<一帶一路> 맞불 놓기

역사에는 늘 맞수가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고대 로마 시대에는 로마와 카르타고가 맞수였다. 프랑스 혁명 후 나폴레옹 시대에는 프랑스가 서쪽으로는 영국, 동쪽으로는 러시아와 맞붙었다. 프랑스의 세력이 약화되자 독일이 유럽 대륙의 새 강자로 부상해 두 차례 세계대전의 불씨로 자라는 가운데 중동과 아시아에서는

영국과 러시아가 충돌했다.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미국과 소련이 맞수였다. 오늘날은 미국과 중국이 맞붙고 있다.

중국은 동쪽과 남쪽으로 태평양에 면해 있고 북쪽과 서쪽으로 유라시아 대륙에 이어져 있다. 청나라 때는 바다 쪽 방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해방파(海防派)와 대륙 쪽 방어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새방파(塞防派)로 나뉘 다뤘다. 수세적이었던 청나라와는 달리 오늘날의 굴기하는 중국은 바다 쪽으로는 군사력을 앞세워, 대륙 쪽으로는 경제력을 앞세워 진출하고 있다. 후자가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이다.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중국 자금을 대고 인프라 건설 등을 지원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으로 중국의 서진(西進)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군사적 동진과 남진은 일본과의 센카쿠 열도 충돌,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난사군도 충돌로 나타났다. 홍콩 점수와 대만 위협은 중국의 군사적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진출을 막기 위해 일본 호주 인도와 인도태평양 동맹을 강화했다. 미국은 그동안 자국과 관련되지 않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일대일로 정책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 일 일간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대체재(代替財)를 제공할 것"이라며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은 주요 7 개국(G7)을 말한다. 11~13 일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일대일로에 대한 대체재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G7 의 협조용자 시스템이 논의될 것이라고 외신들이 보도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 시대에 소련과 동유럽 국가를 향해 봉쇄 정책을 폈다. 소련과 동유럽 국가가 군사적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영역 밖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막은 것으로 궁극적으로 공산권의 몰락을 초래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동맹과 함께 중국의 경제적 서진에도 맞불을 놓기로 한 것은 중국을 동쪽 남쪽 서쪽에서 유연하게 봉쇄하는 신(新)봉쇄

정책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세계는 점점 더 깊이 신냉전 시대로  
빠져들고 있다.

[동아일보 2021-06-09]

## 빅데이터 속 키워드 한국인 최초! 새 역사 쓰다

### <어휘 Up>

승급: 급수나 등급이 오름.

수석: 등급이나 직위 따위에서 맨 윗자리.

사목: 천주교나 성공회에서, 사제가 신도를 통솔·지도하여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

지뢰: 땅속에 묻어 두고, 그 위를 사람이나 차량 따위가 지나가면 폭발하도록 만든 폭약.

### <발문>

1. 한국인 최초의 기록을 세운 에투알 박세은과 교황청 장관 유흥식 주교에게 편지를 써보자.
2. 5년간 지뢰를 찾아온 아프리카큰주머니쥐 마가와에게 '용감한 동물상' 말고 또 다른 상을 준다면? 기발한 상의 이름과 내용을 떠올려 적어보자.

### <교사 참고자료>

#### 파리의 별을 딴 박세은 "'부 메리테<당신은 자격이 있다>'란 말, 어찌나 가슴에 와 닿던지..."

"메리테(Meritez-자격 있어)!" "메리테!"

발레리나 박세은(32)이 10 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오페라발레단(BOP)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마치고 난 뒤 최고 등급 무용수인 '에투알'로 지명되자 동료들이 외쳤다. BOP는 영국 로열발레단, 미국 아메리칸발레시어터(ABT)와 함께 세계 3대 발레단 중 하나로 꼽힌다. 352년 발레단 역사에서 아시아인이 수석무용수가 된 건 처음이다.

이름이 호명된 순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박세은은 알렉산더 니프 파리오페라 총감독과 오렐리 뒤퐁 BOP 예술감독에게 차례로 달려갔다.

박세은을 끌어안은 뒤퐁 예술감독은 그의 귀에 대고 "당신은 자격이 있어요(부 메리테-Vous meritez)"라고 했다. 감정을 꺾꺾 눌러왔던 박세은의 눈물샘이 그제야 터졌다. 뒤퐁 예술감독은 "1년 반 전부터 널

승급시키고 싶었는데 파업, 팬데믹으로 기다려야 했다. 드디어 이 순간이 왔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박세은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메리테'였다. 줄리엣을 연기한 그와 좋은 호흡을 선보였던 로미오 역의 폴 마크를 비롯한 동료들은 "메리테(자격이 있다)"라고 외치며 축하했다.

"다른 표현보다 '넌 자격이 있다'는 말이 어찌나 가슴에 와 닿던지..." 박세은은 12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오디션을 보러 프랑스에 온 순간부터 모든 무대, 그간의 마음고생이 생생하게 떠오른다"고 털어놨다. 프랑스인도 자국 '발레의 심장'에서 떠오른 별에 큰 관심을 보였다. 르피가로, 프랑스국제라디오방송(RFI) 등은 박세은을 "준비된, 항상 준비된 무용수"라고 평했다. 라틴아메리카 출신으로는 처음 2012년 BOP의 에투알이 된 무용수 루드밀라 파글리에로(아르헨티나)와 비교하며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기사를 보니 이제 좀 실감난다. 승급 날엔 오랜만에 선 무대를 잘 마쳤다는 뿌듯함이 훨씬 컸다"고 했다. "에투알이 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고 했지만 새롭게 주어진 '특권'을 듣고는 기뻐했다.

"무용수는 평생 마음 졸이며 선택만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면담에서 앞으로 1년간 공연 계획, 출연할 작품에 대해 다 설명해줬어요. 심지어 제가 어떤 역할을 원하고, 잘할 자신이 있는지까지 묻더라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대우가 낫설었어요. 함께 작품을 만들어가는 느낌이랄까요."

박세은은 16일(현지 시간) '로미오와 줄리엣' 무대에 다시 선다. 에투알이 된 후 첫 공연이다. 그는 두 달 동안 코가 혈 정도로 매주 코로나 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며 연습했다. 박세은은 "절제하지 않고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리베라시옹'이 강한 작품"이라며 "심장을 뛰게 할 정도로 감정을 쏟아붓고 있다. 무용수가 아니라 배우가 된 것 같다"고 했다.

박세은은 에투알로 지명된 순간 처음을 떠올렸다. 10년 전 몸을 쭉 펴고 스트레칭도 할 수 없던 작은 호텔방에서 오디션을 준비했다. 1, 2등만 합격하는 오디션에서 3등을 했다. '내년에 다시 오겠다'는 다짐을 하고

발레 DVD 를 잔뜩 가방에 챙겨 넣었다. 프랑스를 떠나려던 날, “1 년 계약을 하고 싶다”는 전화가 걸려 왔다. ‘에투알 박세은’의 시작이었다.

2005 년 동아무용콩쿠르 금상을 수상하며 이름을 알린 박세은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다. 2006 년 미국 IBC(잭슨 콩쿠르) 금상 없는 은상, 2007 년 스위스 로잔 콩쿠르 1 위, 2010 년 불가리아 바르나 콩쿠르 금상까지 세계 4 대 발레 콩쿠르 가운데 세 곳을 휩쓸었다. 2018 년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브누아 드 라 당스’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받았다.

이번 작품이 끝나면 그는 9 월 시즌 개막작 준비에 돌입한다. “새 에투알을 관객에게 먼저 선보이고 싶다”는 BOP 의 배려로 그는 클래식 발레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에튀드’의 첫 무대에 오른다. 매년 발레단 무용수 전원이 행진하는 퍼포먼스 공연에서는 왕관을 쓰고 걸을 예정이다.

10 일 박세은의 연기를 본 한 러시아 소녀는 페이스북에 커튼콜 영상을 올리며 “제 인생 최고의 줄리엣”이라고 썼다.

“제 진짜 목표는 소녀에게 그랬듯이 예술로 관객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저는 감동을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박세은)

[동아일보 2021-06-14]

## 키워드톤

### 다시 달에서 걷자!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 <어휘 Up>

탐사: 알려지지 않은 사물이나 사실 따위를 살살이 더듬어 조사함.

협정: 행정부가 그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른 나라의 정부와 약정을 맺음. 또는 그 약정. 국제법상의 효력은 조약과 같으나 엄격한 형식을 취하지 않으며,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합의에 쓴다.

약정: 어떤 일을 약속하여 정함.

탑재체: 정찰, 통신, 지구 탐사, 기상 예보 따위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탑재되는 위성체의 구성 부분.

#### <발문>

1. 본문을 읽고 아폴로 프로젝트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가지 이상씩 찾아 적어보자.
2. 달나라에 딱 한 가지 물건만 실어 보낼 수 있다면? 무엇을 실어 보내고 싶은지 그 이유와 함께 발표해보자.

#### <교사 참고자료>

#### 한국, 달 탐사 '아르테미스' 참여, 힘을 합쳐 우주로~!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 '아르테미스'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담은 '아르테미스 약정'에 우리나라가 최근 서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한 10번째 참여국이 됐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1972년 아폴로17호가 달에 착륙한 이후 50여년 만에 미국이 달에 우주인을 보내려는 국제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UAE), 우크라이나 총 9개국이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했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는 이들 국가 외에도 38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민관합동 우주탐사 계획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무엇이며 각국과 기업들은 어떤 역할을 할지 살펴보자.

#### 달에서 실전 연습?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은 2024년까지 인간의 발길이 한 번도 닿지 않은 달 남극에 인류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와 남성 비행사를 보내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달 착륙에 성공하면 우주 탐사를 위한 달 기지 '루나 게이트웨이'를 2028년까지 구축해 2030년에는 화성 유인탐사를 위한 전초기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의 목적은 화성 탐사를 준비하는 것이다. 화성에 우주 서식지를 건설하려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 전력 등 주거 환경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실전 연습할 장소가 필요한데 그곳을 '달'로 삼겠다는 것.

NASA는 △탐사 지상 시스템 △스페이스 런치 시스템(SLS·우주 발사 시스템) △우주선 '오리온' △루나 게이트웨이 △달 착륙선 △우주복을 개발하고 있다. NASA는 최근 SLS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미시시피에 있는 스테니스 우주비행센터에서 SLS 로켓의 4개 엔진이 8분간 불을 붙이는 것에 성공했고, 이 로켓을 플로리다의 케네디 우주센터에 보내 실제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 각자 장점 살려서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한 국가들은 각각 자신 있는 기술들을 제공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한다. 국제우주정거장(ISS)을 유지·보수하는 로봇 '캐나다암'으로 유명한 캐나다우주청(CSA)은 '루나 게이트웨이'를 만드는데 필요한 첨단 로봇 기술을 제공한다. 영국 이탈리아 등이 포함된 유럽우주국(ESA)은 우주인이 달에 거주하는 데 필요한 모듈과 통신 기술, 달 관측용 큐브셋(초소형 위성), 게이트웨이 연료 보급 등을 맡았다.

우리나라는 내년 8월에 발사 예정인 한국 달 궤도선(KPLO)에 NASA의 새도캠(Shadow Cam)을 탑재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한다. 새도캠은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한 달 착륙 후보지 탐색을 위해 달 극지방 영구음영지역(수십억 년 간 햇빛이 비치지 않은 지역)을 촬영할 예정이다.

정부 뿐 아니다. 민간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우주발사체 SLS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달 착륙선 제작사는 우주민간업체 스페이스X가 단독 선정됐다. NASA는 전투기 제조업체 록히드마틴 등과 함께 개발 중인 '오리온' 우주선에 4명의 우주비행사를 태워 달 궤도로 쏘아 올린 뒤 여기

서 남성과 여성 우주인 1쌍을 스페이스X의 '스타십' 달착륙선에 갈아 태워 달 표  
면으로 내려 보낸다는 구상이다. NASA는 스페이스X가 재사용이 가능한 발사, 착  
륙 일체형 우주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았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  
한 블루오리진이 스페이스X의 독점이 우려된다며 이의를 제기해 개발이 중단된  
상태다.

[어린이동아 2021-06-01]